

림춘이 지났어도 류달리 날씨가 땀땀 날이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행복의 요람에서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고싶어 평양시육아원을 찾았다.

정문에서 50고개의 종년녀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알고보니 이곳 육아원의 김정희원장이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수고한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는 순간 눈물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원아들을 두고 마음쓰시었으면 부디 추운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총계를 올라 2층 11호실로 우리를 이끌었다. 육아원에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찾으신 방이었다. 정겨운 돌을 한 마스한 바닥에서 보

## 행복의요람 평양시육아원을 찾아서

육원이 삼태자들에게 노래를 배워주고있었다.

《그날 우리 육아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지혜어린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다툼질》을 하던 방백호어린이를 친히 무릎에 앉히시고 불을 정답게 쓰다듬어주시며 뜨거운 정을 기울여주시었습니다.》

《다툼질》을 했다면 두 어린이를 비롯한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원장선생은 그날 원수님앞에서 세쌍둥이들이 노래를 불러 기쁨을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진정 어린이들을 한눈에 안으시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모습은 자애로운 친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다정한 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보육원들은 삼태자들 매한명씩 담당보육원이 있는데 세쌍둥이들은 평양산원에서 태어나 일정한 몸무게를 가지면 여기 육아원에서 키우며 4살이 되어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들은 각종 피복과 식료품을 무료로 공급받으며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자라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윽고 식사시간이 되자 보육원들은 자기가 맡고있는 호실들에 아이들의 밥을 부지런히 날라고있었다. 그들이 가져온 밥과 국, 찬을 맛있게 먹고있는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박진식 공급부원은 육아원에서는 하루 네끼식사와 두차례의 간식을 보장하고있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육아원에서도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고있다고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시겠다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라고,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육아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우리의 귀전에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날의 뜻깊은 말씀이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아직은 철없는 나이이지만 장차 아이들은 알게 될것이다. 자기들이 어찌하여 외롭지 않고 어떻게 되어 부모모인 아이들보다 큰 복을 받아안고 자라났는가를.



본사기자 최 래 성



차창밖으로 수도의 번오된 모습이 흘러가고있었다. 현대적으로 건설된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잠깐사이에 어제가 아득한 과거로 되어버리는 오늘의 평양이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태어난 건축물들에 경탄을 금치 못하던 나는 한 처녀의 탄성에 눈길을 돌렸다.

《이게 누구예요? 강동무!》

나는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에 기억을 더듬었지만 인츰 떠오르지 않아 저으기 난감했다.

《동무두 참... 두달전에 우리 병원에서 이발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아, 선생님! 이저 정말 인사불성입니다.》

《호호, 그래 어때요? 치료받은 이발이...》

《선생님덕에 끄떡없습니다.》

《원, 별말을... 동무에겐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나에겐 치료해줄 의무가 있으니

응당 한거지요.》

치료해줄 의무, 치료받을 권리!

흔히 듣는 말이다. 허나 새길수록 가슴이 후터워오른다. 국가가 인민을 위해 바쳐야 하는 의무, 인민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권리! 바로 이것이다.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영광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 나라의 제일국책으로 된 공화국에서만 들을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볼수록 마음은 숨엄해지고 눈곱은 젖어든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시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간직하신 백두산위인들의 모습이 우렛이 안겨온다. 인민들을 위해 많은 일

을 하는것이 만경대가문의 가풍이기에 한생 인민들을 위해 살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그 자욱자욱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최대의 의무감으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에 떠받들려 저렇듯 현대적인 인민의 봉사시설들이 수물처럼 일떠선 것이 아닌가.

행복의 웃음과 노래가 차넘치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들을 새겨보며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복받은 인민이여! 자신의 권리를 한껏 누리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마련되고 꽃피는가를 잊지 마시라!

고마운 사회제도의 혜택속에 날마다 무수히 누리는 인민의 행복의 권리들을 생각하며 나는 차에서 내려 출근길을 다그쳤다.

강원성

##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질 한해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 크나큰 포부와 신심에 넘쳐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공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수많은 대상건설이 진행되게 된다.

무엇보다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웅장화되게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평양비행장과 평양역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있을뿐 아니라 동평양지구에 현대적인 상업거리가, 온정과학지구에 위생과학자거리가 일떠서 평양시가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게 될것이다.

조련공산당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이 1월 9일 인터넷트홈페이지에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집값을 모르는 사람들》, 《의사당구역제》, 《실업자가 없는것》, 《녀성들의 존엄》 등의 소재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창천거리를 참관하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곳의 대다수 주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더우기 그들은 집값을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서방에서의 집값을 문의한다. 서방에서 일반근로자가 창천거리살림집과 같은 훌륭한 집을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인민들의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평양시중심부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들을 위한 7층짜리 합숙건물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고 집객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져 말그대로 온 한해가 건설의 동음으로 끓어번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은 경지를 개척할 목표밑에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 작전도 펴고있다. 대동강의 측세에 실내체육경기장이 건설되고 5월1절경기장이 개건보수되는 등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지게 된다.

또한 인민문화궁전과 중앙동물원을 비롯하여 수도의 문화중심지들과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안북도 동림군 농민휴양소, 마천유원지를 비롯한 지방의 문화시설들을 개건보수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 특유의 사회 현상》로씨야정당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다.

의사들이 자기가 담당한 주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돈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 습관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리해되지 않을것이다.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모든것이 무료라는것이다.

에로부터 부모없는 설움이 크다고 하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이 땅에는 절대로 교아가 있을수 없다고 보육원들 누구나 목매여 이야기하였다.

우리에게는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육아원의 모습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정이 폭포처럼흐르는 조국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겨들었다.



본사기자 최 래 성

## 조선의 2014년, 비약과 변혁의 해 인도네시아신문의 글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 1월 18일부가 《조선의 2014년, 비약과 변혁의 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신년사를 해설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창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라고 밝히시었다.

또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를 올해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제시해주시었다.

신년사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농업부분과 건설부분, 과학기술부분이 앞장에서 나아가며 그를 따라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을 일으킬때대해 호소하신것이다.

신문은 신년사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김정은령도자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조선인민은 지금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창성군에서 도시관을 새로 개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훌륭히 개건된 도시관명칭을 창성군미래원으로 부르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2층으로 된 미래원은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학생열람실 등으로 꾸며져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 미래원이 일떠섬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정치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 있게 되었다.

출력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시관을 본보기로 꾸릴 열의드높이 건설을 내밀었다.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건설자들은 내부공사, 외벽타일붙이기, 창문달기 등을 붙이 번째 나چه 다그쳐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건물을 개건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도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개건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기여하였다.

군내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새로 개건된 미래원을 찾고있다.

본사기자

## 쓸모있는 교육인재들을 더 많이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우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열의는 불같다.

과학기술의 통마를 라고 비약의 큰걸음을 내걸어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할 중대한 임무가 우리들앞에 나서고있다.

모든것이 지식에 기초하고 모든 재부와 경제활동이 지식에 의존하는 오늘날 지식경제를 일명 두뇌경제, 학습경제체라고 하는것은 지식경제의 첫째가는 요소가 인제와 지력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자원이기때문이다. 이 지적자원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다. 오늘의 인제는 반드시 다방면적인 학파의 지식을 소유한 복합형의 인재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국의 미래를 떠

메고나갈 믿음직한 팔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우리는 교원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교원들의 과학리론수준과 교수실무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



나가는 한편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넣겠다.

우선 교수방법에서 강의시

간을 줄이고 실험시간을 늘이며 학업성적만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던 종전의 경향을 없애며 박사원교육을 중시하여 학위논문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과정교육으로 넘어가 이 기간에 새로운 학문들과 첨단과학기술을 깊이 체득하게 하겠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최첨단돌과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할 더 많은 교육인재들을 키워냄으로써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를 빛내이는데 기여하겠다.

김영희사범대학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용부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되게 건설하기 위한 설계연구사업에 창조적재능을 합쳐간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세계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조선에는 없으며 반대로 파사로온 해의빛과 같은 인민적시책들만이 실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의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사기자